

2020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결과보고 발표

 부산일보사

가. 기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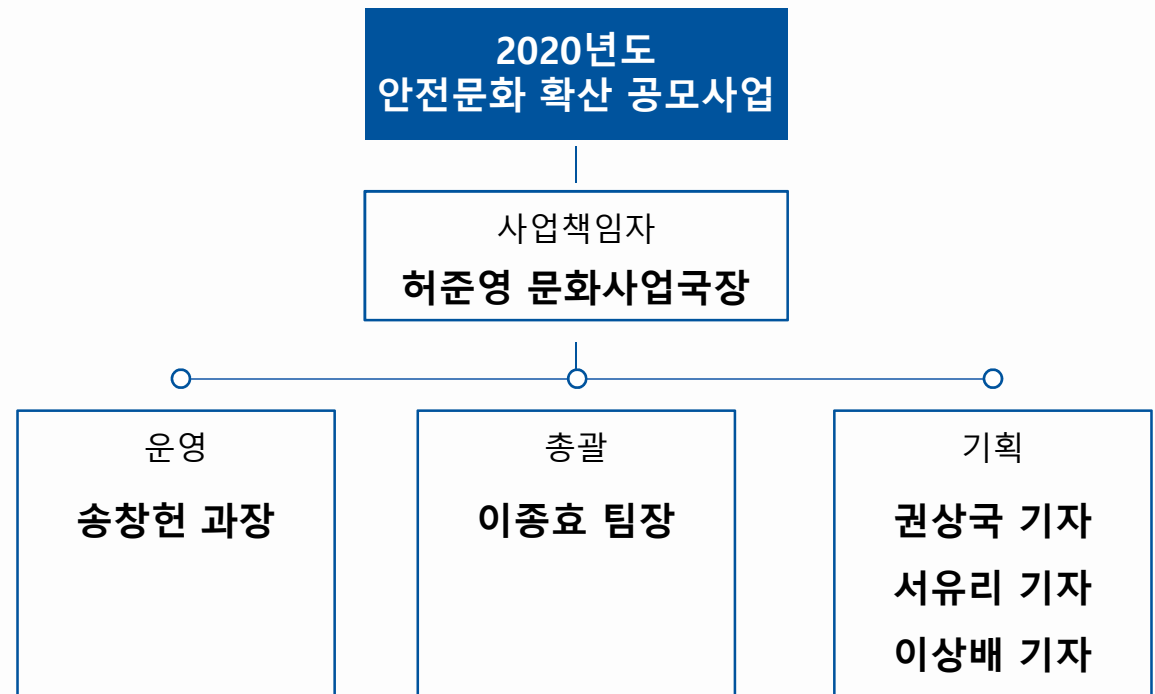
상 호	부산일보(주)
주 소	부산 중구 중앙대로365
자 본 금	20억원
설 립 일	1946년 09월 10일
주 주	(재)장수장학회(100%소유)
대 표 이 사	김 진 수
신문부수내역	유료부수 : 11만부 발행부수 : 14만부
	네이버(모바일,pc) 구독자 : 110만명

캐치프레이즈



나. 사업추진 조직

조직도 및 업무분장



참여인력 현황

(단위 : 명)

계	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자
6	1	3		2

다. 사업 목적

“ 안전한 일터는 당신이 만듭니다.”

NO	사업참여배경	사업 목적
1	산학협력 교육정책으로 위험한 실습환경에 노출된 마이스터고 재학생은 매년 취업률을 공시해야하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음	기획보도 1편 관련사고 통계와 사례를 제시하여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과 교육 필요성을 제기
2	항만물류의 중심인 부산항은 특성상 고위험 인자에 상시 노출	기획보도 2편 대표적인 사망사고 사례인 '추락' '끼임' '충돌'의 항만 내 사고사례 제시 및 항운노동조합과 연계하여 사고 감소대책 제시
3	대기업은 안전에 관한 비용을 투입하여 산재 발생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는데 비해 하청업체는 저가 수주를 위해 안전 비용에 투자가 어려운 현실.	기획보도 3편 대기업 일변도의 안전비용의 혜택이 외주(하청) 업체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역할 제시 및 관련 정책 제시
4	산업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장 기고문을 통한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 고취	기고문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전문가) 산업 안전에 대한 현실 및 대책안 제시
5	각 기획보도 주제 중요성을 시각화하여 재강조	지면 광고 2회

“ 각 기획보도 핵심 내용을 구독자 및 부산 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 ”
 산업체 및 근로자에게 반복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대책 마련

가. 사업의 목표

- 각 사안별 특집보도와 전문가칼럼, 지면광고로 각 산업별 사망사고 등 재해예방 인식 제고
-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 분야 대책마련 유도를 통한 2020년 사망사고율 감소
-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와 지역 기업이미지 상승 도모

나. 사업 추진 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업계획회의의 3회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핵심 사항 검토/ 기획회의의 1회 - 세부 사업 계획 수립 / 운영회의 - 사업 추진 일정 및 업무 분담	
기획보도 1편 마이스터고, 위험한 실습에 노출된 학생들	취업률을 공시해야하는 특성상 위험한 실습현장에 내몰릴 가능성 큼 → 관련사고 통계와 사례를 제시해 안전한 실습환경 제공 필요성 제기
기획보도 2편 위험천만 부두항만	부두는 각 종 위험한 설비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이 미진 → 관련 법령과 설비개선 및 교육강화 필요성 제기
기획보도 3편 '안전비용'은 어디로?	대기업은 안전에 관한 비용을 투입하여 산재발생 차단에 주력하지만, 하청업체는 저가수주를 위해 안전비용 투자 불가능. → 하청 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방안 제시
기고문(전문가칼럼) 코로나와 산업 안전	2020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기획기사 변경 → 코로나 19의 피해와 안전 사고의 피해를 비교하여 경감식 강화
지면광고	기획보도 주제를 중심으로 디자인 작업하여 지면광고 2회

기획기사 <마이스터고 위험한 실습에 노출된 학생들>
04.28 지면, 온라인(네이버 뉴스)

[illegible]








실습생은 '근로자 아닌 학생' 신분, 노동법 사각지대 '싹들'

이성애 기자sanghae@busan.com

입력: 2020-04-27 18:56:30 수정: 2020-04-27 18:59:35 게재: 2020-04-27 18:58:34 [100%]

업계와 실습실 전경.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은 학내 실습실이나 산업체
장에서 **숙** 용접, 절삭, 납땜 등 작업을 실습해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
안전보건공단 제공

기획기사 <위험천만 부두항만>
05.19 지면, 온라인(네이버 뉴스)

1월 4주부터 12월 4주까지
 1월 4주부터 12월 4주까지
 1월 4주부터 12월 4주까지
 1월 4주부터 12월 4주까지
 1월 4주부터 12월 4주까지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복지센터 (부산)

BUSAN 부산광역시
.com

[안전한 일터, 당신이 만듭니다] 2. 사망사고 및 따르려는 부산항
 1월 4주부터 12월 4주까지 수 1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가. 사업 추진 실적

기획기사 <잇따르는 승강기 노동자 안전사고>
06.16 지면, 온라인(네이버 뉴스)

-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61518261621127>
-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51818370003835>



안전한 일터, 당신이 만듭니다 3. 잇따르는 승강기 노동자 안전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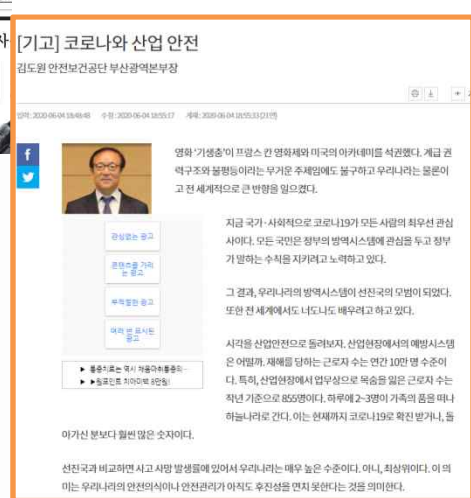
하청업체에 낮은 단가 강요하는 불법 하도급이 '화근'

권상기자 ksk@busan.com

일짜: 2020.06.15 18:26:16 수짜: 2020.06.15 18:32:09 게재: 2020.06.15 18:32:24(18시)



2019년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노후 승강기 교체 작업 도중 승강기가 추락해 인부 2명이 숨졌다. 부산일보DB



가. 사업 추진 실적

부산일보 지면광고 총 4회 집행(사업 계획 시 2회)

특기교



이동규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정책연구소
장 소장 /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illegible]

재난에 학습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과실, 정부의 소만에 따른 결과라면, 정부와 정치인들은 자난의 책임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무언가를 학습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과정에 몰려들었다.

평화와 상호인식은 학생의 존재를 보듬어주기 위한 제1원인을 밝히기 위한 각종 조사연구를 통해 실행되고, 국제적 차이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여전히 대립과 성찰을 필요로 하는 제2차원이 필요하다. 유사한 제안을 제정·교차하기 위한 경우라면 해당 제안을으로부터 유언장을 학습하거나 불·미안 제언의 경우 다른 제언에 대한 존중과 대응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가 되는 소개한다.

태도 교육과 관련된 학습은 긍정적이고, 창의적이어야
고. 문제해결 가능성이 있는 문화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태도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
대상, 언어, 조직, 내용, 방법, 평가, 학습자
의 특성을 위한 접근적인 관 고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유사한 사건이나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일어난다면 보다 잘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무엇이 잘못였고 '무엇이

행태자아 하신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하고
해야 한다. 따라서 재난 원인 관련 정보가 확립
되고, 증거가 삼라만상, 피해자들의 의견을 위
합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수집하며, 보고서가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일과에 근거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산은 흔히 간접한 연경구 또는 정화해는 연경한 해라고 《대동·북구의 4천여년(大東·北國の四千年)》에서 해산은 해산의 4천여년(海山の四千年)이라고 표현을 넣는다. 그 단락을 따라 다양한 기법들이 관례적으로 있다. 표지에는 산물을 대항하여 4천여 년의 산물지, 혹은 표지에는 새우고, 국토부는 산물 발전에 대하여 대항을 지 정하며, 대동은 소항에서 해양을 대항의 해를 정하며 대항이다. 그리고 북구는 조강, 북구기금당장, 의문점 등에 관한다. 어항 단락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산물지에는 일련의 정화해로 넣는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에도 경기도 어선 유흥업고 화재와 밀집도 고령선불이 잇달아 발생했다. 우리는

비대 국가에 누가 학습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다투면서 무엇을 학습하는가의 문제를 인정 시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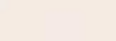
‘요로내과’ 같은 인간 감성형 사례는 2003년 사상, 2009년 신동률, 2015년 배옥수 등이 있다. 여전히청사 같은 공과 작업 중의 사례는 2008년 이현정고 회화, 2014년 고영희화, 2017년 정만애의 플라스티크성기 회화, 대형 신불 사례는 2000년 정해연 신불, 2005년 양영-이재현 신불, 2013년 강원도 신불 등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는 다량의 자료로부터 학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이 필요하다. 지난 연인과 관련된 분석이나 평가없이 단순히 틀나서 나오는 다양한 학습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유사한 내용의 학문에서 드러난 학습의 증거를 확보해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이 많이 걸라도 생각속의 중요한 실과가 정책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학습이 일어나는 일단의 증거를 사정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 공룡이 애초 누군가 말을 건다. “내가 만든 거냐?” 그는 알뜰하게 한 구멍이 애초이고 칭찬한다. 말한다. 그리고 “회고” 세 천구의 격려가 뽀뽀하는 더 크고 더 멋진 구멍을 보여 준다. “다른 것과 달라” 같은 말이지만 결코 칭찬의 눈은 완전히 다르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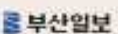
부동산·건설·인프라·에너지



안전한 일터 당신이 만듭니다!

《부산일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한 일터, 당신이 만듭니다' 시리즈를 통해 지역 내 주요 산업별 사고와 재해를 미연 안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이 기획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부산일보가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01 위험물 내뿜는 작업계고 학생들
실습생은 근로자 아닌 학생 신분, 노동법 시각지대 '신음'

> 2020년 8월 28일 목요일 | 11면 기획보도

02 차량사고 잇따르는 부산항
전국 4대 항 중 사망자 수 1위... 안전 투자 눈감은 탓

> 2020년 5월 13일 목요일 | 11면 기획보도

03 잇따르는 승강기 노동자 안전사고
하청업체에 낮은 단가 강요하는 불법 하도급이 '화근'

>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 11면 기획보도









나. 사업 추진 실적 확장

특별보도 <산업안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

오늘을 여는 시

구름

김참

구름, 내가 꽃향기 맡으며 계단을 내려갈 때 뒷산을 넘어가면, 구름, 내가 달리는 기차 타고 검은 터널 빠져나올 때 포도밭 위에 떠 있던, 구름, 내가 수초 사이 작은 물고기 구경할 때 저수지 잔물결 위에서 출렁이던, 구름, 내가 참외밭을 지날 때 강 건너 산자락에 걸려있던, 구름, 미끄럼틀 타던 아이가 엄마 손 잡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파트 피뢰침 꼭대기에 걸려있던, 구름, 내가 구멍 뚫린 커다란 달을 보며 음악을 들을 때 밤하늘을 횡단하던, 구름

- 김참 시집 <그녀는 내 그림 속에서 그녀의 그림을 그려요> 중에서 -

경계가 없는 하늘처럼 구름에서 시작하여 구름으로 끝나는 이 시는 문장이 끝나지 않는다.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듯 입표가 구름처럼 떠 있다. 지금 내 눈 속에 들어오는 구름이 있다면 이미 일 분 전의 구름이 아니다. 무상하게 변화하고 흘러가는 구름은 일

본이라도 자세히 보아야 그 변화를 눈치챌 수 있다. 마치 오래된 너와 나의 관계 같기만 하다. 무심한 한 사람과 늘 그 곁을 지키는 한 사람. 내가 구름일까, 네가 구름일까. 문득 한 사람을 오래 들여다보고 싶은 맑은 아침이다.

김종미 시인

독자의 눈 산업안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상황이다. 방역 문제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거안사위(居安思危)'이다. 이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로 '편안할 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재난을 미리 생각하라'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처 모범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방역 당국이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러한 거안사위적 자세를 잘 취해 와서일 것이다.

지난해 일타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만 855명(하루 평균 3명)이고 전체 사고 재해자는 9만 4,047명이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 사고 사망자가 53명이고 휴업일수 90일 이상의 중상해 재해자 수는 1,659명이다. 이러한 산재의 결과로 고귀한 인적 손실뿐 아니라, 직·간

접 손실액이 무려 2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20년 일자리 예산과 맞먹고 부산시 예산의 약 2배 수준으로써,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서 절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산재손실 비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전'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두는 '거안사위'의 단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및 각 개인 모두가 마음 깊이 새긴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버는 것이며,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배광호·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 광역사업부 차장

※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게재되면 고료를 지급합니다. 부산 동구 중앙대로 365 부산일보 편집국 독자여론부, 우편번호 48789, opinion@busan.com, 팩스 051-463-8880, 문의 전화 051-461-4112.

구독자 메일링 서비스

[메일링 통계] 안전문화확산공모사업

날짜	발송량	성공	대기	사용자 없음	박스 풀 오류	서버 오류	네트워크 오류	설정 오류	기타오류
2020-07-01	138,412	110,005	0	19,841	22	3,255	3,059	1,183	1,047

다. 사업 기대 효과

세부사업명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대상	안전문화 확산에 따른 사고감소 대상	산업재해 감소(기대)효과		페이지뷰
마이스터고, 위험한 실습에 노출된 학생들	110만명 (구독자 및 근로자(예비취업자))	재학생 (전국) 19,476명 (부산) 1,740명	직접적	예비취업자 실습 현장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고 감소	월 평균 3~5만 누적 페이지뷰 증가
			간접적	산업재해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환경 및 교육 필요성	
위험천만 부두항만	110만명 (구독자 및 근로자(예비취업자))	부산지역 항만 근로자 12,200여명	직접적	항만근로자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 감소	
			간접적	4대 악성사고에 모두 노출된 현장에 대한 설비 및 교육강화, 법령 개선 제기	
코로나와 산업 안전	110만명 (구독자 및 근로자(예비취업자))	전체	직접적	산업 재해 예방 및 관련 근로자 안전 경각심 강화	
			간접적	산업 안전 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안전비용'은 어디로?	110만명 (구독자 및 근로자(예비취업자))	부.울.경 지역 사업체 종사자 2,270,000명	직접적	사업체 대표 안전비용 필요성 인식 확대	
			간접적	사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향후 방향성 및 지원제도 등 방안 제 시	
지면광고	110만명 (구독자 및 근로자(예비취업자))	전체	각 기획주제별 이미지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의식 제고 및 중요성 재강조		
메일링서비스	11만명 (구독자 및 근로자)	전체	각 기획주제별 이미지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의식 제고 및 중요성 재강조		



2020년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감사합니다

 부산일보사

